한국불교 생활선 세계화 가능성을 엿보다

특별기고
세계종교역사학회 참관기


세계종교역사학회는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폴란드 야기엘로니안 대학에서 제23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100여 개국, 3000여 명의 종교학자가 참여했으며 '한국불교의 이슈들' 세션이 신설돼 눈길을 끌었다.

폴란드 최초 대학인 야기엘로니안 대학에 전 세계 종교학자들이 모여들었다.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제23회 세계종교역사학회(IAHR World Congress 2025)'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모인 3000여 명의 연구자와 수행자들은 학술대회 기간 동안 종교 역사와 철학, 수행과 신앙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세계종교역사학회는 1900년 창립 이후 120년 전통을 이어온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학 학술대회다.

올해 학회의 대주제는 '유럽을 넘어: 연결된 세계 속의 종교 연구(Out of Europe: Studying Religion(s) in Interconnected Worlds)'였다. 종교학이 유럽에서 탄생해 전 세계로 확산된 과정을 돌아보며, 서구 중심의 관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 불교학계 역시 중요한 목소리를 냈다. 학술대회에 참여한 한국 연구자들은 생활선 사상과 연등회 의례의 수행적 의미, 서구 사회에서 한국 불교의 확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한국 불교의 전통과 현대성을 세계 학계와 폭넓게 공유했다.

한국불교 세션 '생활선' 관심多

8월 25일 오전 파데레비아눔(Paderevianum) 9 103강의실에서 열린 '한국불교의 이슈들(Issues in Korean Buddhism)' 세션에서는 총 네 편의 주제발표가 이뤄졌으며 한국불교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모여 이를 경청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발표는 필자가 맡았다. 필자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현대 불교 세계화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중심으로 한국 불교 수행의 현대화와 세계화 과정을 분석했다.

"대행 선사의 사상은 한국 불교를 현대인들의 삶과 연결시켜 일상 수행을 세계와 소통하는 길로 열어줬다"고 주장한 필자는 대행 선사의 생활선 수행법이 일상 언어로 구성돼 문화와 지역을 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가 세계 수행 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어 혜유 스님(한마음아카데미, 독일)은 '서구사회에서 한국불교 전파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스님은 1980년대 이후 한국불교가 서구에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한마음선원의 국제포교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1990년대 미국과 유럽에 설립된 한마음선원 해외 지원들은 현지인들과 수행을 나누는 데 중점을 두며 초기부터 영상·신문·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혜유 스님은 "대행 선사의 법문은 일상 언어로 쉽게 풀어내기 때문에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1986년 시작된 법문 영상 제작, 1996년 시작된 인터넷 방송, 현대불교신문 창간 및 온라인 포털 운영 등은 당시로서는 매우 선구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설립된 한마음국제문화원의 역할도 비중 있게 다뤘다. 한마음국제문화원은 대행 선사의 법문을 영어·독일어·베트남어 등 10여 개 언어로 번역·출판하며 서구 사회에서 한국불교의 인식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혜유 스님은 "번역과 미디어는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핵심 열쇠"라며 "앞으로도 한마음선원의 수행과 사상이 세계 속 생활 불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수경 동국대 명상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는 '한마음 과학자로서의 학자: 대행 선사의 영성, 의식의 전환, 그리고 상호연결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겸임교수는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을 바탕으로, 학자가 단순한 지식 생산자가 아니라 정신적 의식을 회복하는 존재로서 사회와 역사 속에서 책임을 수행함을 강조했다. 대행 선사는 인간이 본래 지닌 근본 마음(한마음)을 "무한한 지혜와 자비, 가능성을 품은 근원"으로 정의하며, 이를 깨닫고 활용하는 것이 수행과 학문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또한 발표에서 '한마음 과학자(Hanmaum Scientist)'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학자는 지성과 직관, 물질과 정신을 통합해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는 깨어 있는 연구자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혜유 스님이 한마음선원의 국제 미디어 포교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박진영 교수가 '탈식민주의와 동아시아 종교연구' 논단서 발언하고 있다.

8월 24~30일 야기엘로니안大서
2025세계종교역사학회 학술대회
100여 개국 3000명 학자 운집
'한국불교 이슈들' 세션 신설돼
대행 선사, 영산재 등 주제발표
박진영 교수 등 한국 학자 참여



세계종교역사학회 제23회 대회에 참여한 한국 학자들.

명했다.

또한 연구자는 학자가 자신의 심리적 취약성과 편견을 인정하고, 내려놓음과 맡김의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황 겸임교수는 강조했다.

오디토리엄 맥시멈 미디엄홀에서 열린 '종교, 축제, 공동체: 새로운 사회 정체성의 형성 Ⅱ'에서도 한마음선원 사례 연구 발표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박진영(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 씨는 '수행으로서의 축제: 현대 한국불교 사찰의 연등회 준비 사례'를 통해 한국불교 대표 도심 사찰인 한마음선원의 연등회 준비 과정을 소개하고 "연등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행사 차원을 넘어 수행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음선원 불자들에게 있어 연등회는 일반적인 축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연등을 제작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전 과정을 수행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인다"라고 강조한 그는 한마음선원 불자들은 연등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대상에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불성의 작용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 전통 의례와 축제가 현대적인 선 수행으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해외 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같은 세션의 김종명 금강대 교수는 '한국 영산재 불교 의식: 그 사상적 기반과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영산재는 〈법화경〉의 영취산 설법 장면을 재현하는 한국 고유의 불교 의식으로, 음악·무용·회화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의 장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표 의례다.

김 교수는 "영산재가 단순한 전통 행사에 머물지 않고 업보·인과·윤회·정토·선(禪)등의 사상을 담아 참가자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적 길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안형진 씨(인도 델리대학교)는 '한국의 여성 관세음보살 신앙과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관세음보살신앙은 여성적이고 친근한 특성을 지니며, 특히 바다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발전해 왔다"면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여성적 관세음보살신앙은 중국과 일본의 남성 중심 불교문화와 대비되며, 한국불교가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해 온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韓석학이 종교학 논단도 눈길

8월 26일에는 세계적 석학인 박진영 아메리칸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탈식민주의와 동아시아 종교 연구' 라운드 테이블 논단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논단에서는 서구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학의 구조적 한계와 동아시아 종교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박 교수는 서양의 식민주의와 국가주의 역사 속에서 아시아의 종교학자와 철학자들이 학문적 주류에서 배제되거나 주변화(marginalized)된 현실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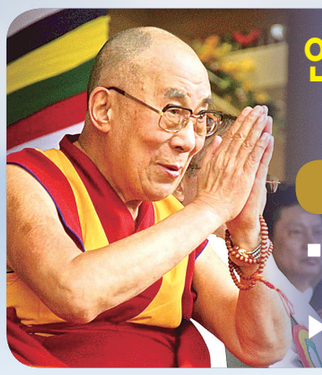
박 교수는 "서구에서 형성된 종교학의 개념과 분류 체계는 동아시아 종교와 철학의 다양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며 "아시아 종교와 철학이 서구적 카테고리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해석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서구적 시각을 넘어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수행과 신앙을 재해석할 필요성과 세계 종교학 담론에서 다양성을 반영할 방법론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동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필자에게 2025 세계종교역사학회 학술대회 참가는 한국불교의 전통과 현대성, 그리고 수행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 속에서 다시 바라보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



박훈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11월02일 출발~11월07일 도착(6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250만원 (보시금 30만원 별도)

인도 달라이라마 친견 및 인도성지순례 13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및 인도성지순례 일정입니다.
10월27일 출발~11월08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399만원 (보시금 30만원 별도)

인도 달라이라마 친견 및 아잔타석굴 9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및 남인도 아잔타석굴,산치대탑등 순례 일정입니다.
10월31일 출발~11월08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오랑가바드-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산치대탑-델리-다람살라-달라이라마친견(법왕궁)-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359만원 (보시금30만원 별도)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 일정으로 돈황석굴과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10월10일~10월19일(9박10일)
■ 일정: 인천-서안·법문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끝)·돈황석굴-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11월25일 출발~11월30일 도착
■ 일정: 인천-남경-지장보살 구화산-항주-관음보살 보타산-상해-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 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중국 4대 석굴중 하나인 대족석굴, 낙산대불등 사천성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10월22일 출발~10월26일 도착
■ 일정: 인천-성도-대족석굴-낙산대불-3,077미터 아미산 케이블카 등정-성도-인천
▶ 동참금 : 문의

인도,네팔 성지순례 10일
10월23일 출발~11월01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11월30일 출발~12월09일 도착 (인도성지 10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인도양의 진주 아름다운 스리랑카 성지순례
11월26일 출발~12월03일 도착(8일간)
■ 일정: 인천-콜롬보-담불라-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야(홍차산지)-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문의